

경북, 나노기술 원스톱 서비스 추진

나노·반도체·바이오 첨단장비 40여종 구비 ... 2007년 5월 개원 예정

5월 개원할 예정인 경북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를 도입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포항나노기술센터는 3년간에 걸쳐 펌동(클린룸)과 연구개발동, 유틸리티동 등을 최근 완공했으며 개소 이후에는 경북 기업들이 겪는 기술적 애로점을 찾아 해결해주고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경북지역 기업이 첨단기술 및 연구장비를 이용하려면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애로사항 접수부터 실용화까지 전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용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기업별 일대일 마케팅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R&D 과제를 찾고 있다.

경북나노기술집적센터는 경상북도가 2004년 7월 산업자원부 유치기관 공모에서 포스텍(포항공대)을 주관사로 지역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112개 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했고, 이후 참여기관은 삼성전자와 한국전기연구원, 경북대 등 136개로 확대돼 나노·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관련 첨단 연구장비 40여종을 도입했다.

5월 개원하면 기업, 연구소 등 10개 기관이 입주해 하반기부터 본격 연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1>